

마르코 복음서 3장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마태 12,9-14; 루카 6,6-11)

- 1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 2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 지켜 보고 있었다.

유다교 라삌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병자가 죽을 위험에 있지 않는 한 안식일에 그를 도와서는 안 된다.¹⁾ 그래서 그들은 올가미를 씌우려고 예수님의 자세를 주시하는 것이다.

- 3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은 공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항상 공개적으로 행하셨다.

- 4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 5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²⁾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1)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행하시려는 행동과 악의를 가지고 당신을 노리는 적대자들의 행동을 대조시키신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모든 일과 그 밖의 선행까지도 이 원칙을 적용하시며 확대하신다.³⁾

2) 안식일 규정을 떠나서 병을 고칠 수 있음에도 그로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요,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것과 같다.

3) 예수님께서서는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날

1)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66쪽, 각주 4.

2) 로마 2,5 : 그대는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진노와 계시의 날에 그대에게 쏟아질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에페 4,18 :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어두워져 있고 하느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히브 3,8-9 :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반항하던 때처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다.

3)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66-67쪽, 각주 5 참조.

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다.

- 4) 오늘날 주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은, 단지 주일미사를 참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6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함으로써, 예수님과의 갈등 곧 수난이 예고된다.

군중이 호숫가로 모여들다

- 7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래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8 예루살렘, 이두매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물려왔다.
9 예수님께서 군중이 당신을 밀쳐 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10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온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아드님께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목격함으로써 그 증인들이 된다.

- 11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12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 1)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의 신원 곧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알아본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신다.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더러운 영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곧 당신의 때인 수난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나야 한다.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마태 10,1-4; 루카 6,12-16)

- 13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

이 그분께 나아왔다.

- 14 그분께서는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15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16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둘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시몬,
17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18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태오, 토마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타대오, 열혈당원 시몬,
19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 1)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르치시는 것은 호숫가에서 하시고, 기도하시거나 당신 제자들에게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는 군중에게서 떨어져 산으로 오르신다.⁴⁾
2) 산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시고, 찾으신 것을 내려오시어 군중에게 가르치신다.
3) 주님께 나아온다는 것은 준비된 자들임을 의미한다(13). 곧 부르심에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다.
4)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늘 주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선포의 권한을 받아야 한다(14-15).

예수님과 베엘제불(마태 12,22-32; 루카 11,14-23; 12,10)

- 20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21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22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23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 내지 못한다.
25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 내지 못할 것이다.
26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 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27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4)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67쪽, 각주 16 참조.

29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30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마태오 복음서 12, 22-32 해설 참조.

예수님의 참가족(마태 12,46-50; 루카 8,19-21)

31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32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였다.

34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35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1) 혈육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⁵⁾ 실천하는 삶을 중요시하시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⁶⁾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진정한 형제요 자매 곧 가족이 된다는 것이다.

2) 신앙으로 하나 된 가족이 곧 교회이다.

5) 요한 6,40 :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로마 3,22-23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6) 신명 10,12-13 :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너희가 잘되도록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다.